

# 다양한 친환경 체험을 통해 실천하는 녹색시민 국내 사회환경교육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환경교육은**  
학교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친환경 체험과 감수성 배양으로  
내면화하여,  
미래사회가 요구·실천하는  
녹색시민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주입식은 이제 그만!

### 사회환경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했다. 태양의 크기와 온도에 대한 지식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일출에 우리는 더 큰 감흥과 감동을 받는다.

환경교육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바탕삼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환경교육이 지향하는 이러한 생태적 감수성은 책상 앞에서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충분히 함양하기 어렵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환경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환경교육은 ‘유치원,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환경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교육’을 폭넓게 정의하는 말이다.<sup>①</sup> 강, 산림, 갯벌 등 자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환경교육은 자연체험, 환경탐사, 생태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되며, 피교육자는 이를 통해 직접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특징을 갖는다.

학교내 정규 교과과정에서 환경과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도입된지 20년이 되어가지만<sup>②</sup> 여전히 학교내 환경교육 과목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는 9.1%, 고등학교는 30.7%의 학교만이 환경과목을 선택하였다.

---

최영진 | 환경부 녹색협력과장

서울대학교

국무조정실, 외교부 외교안보심의관실, 국무총리실 안전정책관실 자연재난지원과장 등 역임  
tel 02-2110-6687 | choiyj63@korea.kr

---

## 연도별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08, 환경부)

구분/년도	2005	2006	2007	2008	
중학교	총학교수 선택학교수 %	2,936 346 11.8	3,010 403 13.4	3,054 402 13.2	3,098 282 9.1
	총학교수 선택학교수 %	2,100 636 30.3	2,140 637 29.8	2,172 675 31.1	2,190 673 30.7

사회환경교육은 이러한 낮은 수준의 학교환경 교육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친환경 체험과 감수성 배양을 통해 내면화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실천하는 녹색 시민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체계적 지원이 더 필요한 현황과 전망

사회환경교육은 크게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의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홍보단, 환경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연간 149만명에 대해 환경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연간 환경교육 실시현황('09, 환경부)

소 계	푸른이 이동 환경 교실	지역환경 연수원	환경교육 시범학교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 홍보단	환경부 산하기관	기 타
1,490,514	19,491	141,840	8,000	80,000	520,942	686,084	34,157

반면,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환경교육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파악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07년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교육 단체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 688개의 환경 단체를 통해 연간 30만명에 대해 환경교육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환경교육은 주로 소규모 사업 위주, 단순 생태체험 위주로 운영<sup>3)</sup>되며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여 강사진 및 시설 운영, 교육과정 개발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지역내 어떤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공급자-수요자

간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09년 12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통해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을 창의·인성교육 시범 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학교밖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력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사정관 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환경교육의 획기적인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Best 3

사회환경교육의 발전방향을 크게 인력, 교육 내용 및 교육기반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 대한 연수과정 확대·강화

우선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sup>4)</sup> 민간단체 활동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6시간임에 비해 평균 교육훈련일수는 연 4.94일로 일반 기업체의 1/5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단체의 교육훈련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높은 이직율로 전문가 양성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기반구축이 시급한 현실이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하천, 산림, 갯벌 등 지역 환경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를 숙지할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문제, 교육프로그램 홍보·기획 등 일반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민간단체 지도자에 대한 환경연수 과정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08. 3월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환경교육지도사양성기관의 지정을<sup>5)</sup> 환경교육에 대한 잠재적 일자리 수요 및 사회적 여건 성숙수준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다양한 사회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다음으로 자연체험·환경탐방 등 획일화된 환경

[1]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08. 3. 법률 제8949호)

[2] 제1차 교육과학 821부터 환경교육 내용이 관련교과에 포함되어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제2차 교육과학 921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선택과목으로 개설

[3] 초등학생 대비(43.3%), 성대체율 유형(41.8%), 서류비는 100~500만원(42.9%)이 절반가량 차지)[07 환경교육단체 현황조사, 환경부]

교육 내용을 다변화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제고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사회환경교육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융·복합 사회의 도래에 따라 환경과 문화·예술의 연계, 도-농교류를 통한 환경교육 등 환경교육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간 연계와 상호발전을 통해 다채로운 사회환경교육이 제공되어야 것이다.

환경부는 다양한 사회환경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교재개발, 교육자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환경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교육진흥법' 상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sup>④</sup>를 통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적합성·공공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교육단체와 학생·학부모간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녹색성장은  
국민 모두가 친환경 생활양식을  
체득하고 전환해 나갈 때  
달성될 수 있다.**

**환경교육은  
미래 녹색시민 양성을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인적자원을  
창출하여 "아래로부터의 실천"을  
확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컨텐츠 개발,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발전·확대  
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환경 교육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언제, 누구나, 희망하는 사회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교육체계로는 지역환경에 특화된 환경교육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 자체를 중심으로 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에 의해 주도되는 환경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지역환경교육 센터를 지정<sup>⑤</sup>하여 이러한 지역사회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중추적 가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하고, 지역 교육청, 지방(유역) 환경청, 교육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환경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연계 및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녹색성장과 사회환경교육

전지구적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함에 따라 기존산업 중심의 성장에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녹색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연의 문제이며, 녹색성장의 시대적 흐름에 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국민 모두가 친환경 생활 양식을 체득하고 전환(Green Conversion)해 나갈 때 달성될 수 있다. 환경교육은 미래 녹색 시민 양성을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인적 자원을 창출하여 '아래로부터의 실천'을 확산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08.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의 국정비전으로 널리 천명하고, 강력한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를 OECD 국가中最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극복한 바 있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인 사회환경교육의 획기적인 도약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